

인사청문대상 5곳에서 9곳으로

전북도-도의회, 인사청문
실무협상 TF 통해 확대 협의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청문회가 대폭 확대된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와 전라북도지사 김관영)는 6일 의정실에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도 정부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인사청문 실시 협약은 현행 5개 기관을 9개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산용보증재단, 전북개발공사, 문화관광재단 등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제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16개 중 9개가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출연금이나 자본금을 고려할 때 도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모든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6일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한 영역인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도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각각에 꼭 맞는 장을 맞다면, 우리 도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제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인사청문 대상 연임 제의 규정 개정, 인사청문 기간 연장(10일→15일), 인사청문 위원 증원(10~11명→11~12명),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추가, 후보자·참고인 등의 보호 추가 등이다.



고창군의회, 태풍 피해현장 방문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의원들이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피해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대책 마련과 재난대비 비상체계를 재정비하여 민약에 탁월한 재난관리에 대비하고자 이뤄졌다.

임정호 의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농작물 및 시설피해 확인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농업인들이 태풍피해 신고를 못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태풍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의 입장에서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한번 신청하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 정보가 '쏙'

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접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은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생애주기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안내한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15개 복지사업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

로 자동 전환해 안내했으며, 도내 3만3,910가구가 신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날 6일부터는 신청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복지멤버십만 개별신청하는 단독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포(www.bkj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서비스는 15개 복지사업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고 말했다.



추석 맞이 장보기 나선 민주 전북도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당소속 시도의원들이 6일 익산 북부시장을 찾아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 추석, 모두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되길”

도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태풍 피해 여부도 확인

전북도의회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인 익산북부시장을 방문해 도민들의 애환을 살피고 태풍 피해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전라북도의회는 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국주영(전주12) 의장과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12), 김대중 의원(익산1), 윤영숙 의원(익산8), 한정수 의원(익산4) 및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은 익산북부시장에서 이대준 상인회장과 만나 태풍 피해 여부와 전통시장 이용객이 줄어든 어려움을 청취했다.

또한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쌀, 생선, 견과류 등을 구입한 뒤 '전통시장 장보기 함께해요'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어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 시설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수 운영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윤영숙 의원(익산8), 한정수 의원(익산4) 및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은 익산북부시장에서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를 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와 3고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시는 도민 모두 한가위와 같이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명절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더욱 외롭고 힘들다"면서 "올해 추석은 모두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한국노총 완주지부와 간담회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지난 5일 한국노총 완주지역지부와 정례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과 한국노총 완주지역지부 최한식 의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회 별 위원장들이 함께했으며, 각 위원장들은 완주군의 근로 환경개선과 한국노총 완주지부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최한식 위원장은 "완주군이 자 완주군의 일원인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에 완주군의회에서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고, "노총에서도 완주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상견례의 시간으로 알고, 차후 더 많은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한국노총 완주지부 산하 각 위원회에 어려움을 해소해 근로여건 개선에 힘을 모아주겠다"고 밝히고, "향후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정은 "금일 제시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 지원책을 찾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지역 내 사회공헌 사업에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